『야부노나카(藪の中)』 소고찰(1)
-다죠마루(多襄丸)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真砂)像-

감영희*
kamyo1110@tu.ac.kr
백성희**
seonghee88@daum.net

<目次>

1. 서론
2. 작품의 이해
   2.1 작품개요
   2.2 난해성과 마사고의 역할
3. 숙명의 여성, 마사고
4. 다죠마루의 자백과 마사고상
5. 결론

主題語: 숙명(fate), 팜파탈(femme fatale), 다죠마루(Dazyoumaru), 자백(confession), 마사고(Masago), 역할(role)

1. 서론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이하, 아쿠다가와)의 『야부노나카(藪の中)[1]』를 주제로 한 선행 논문이나 연구물은 대개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서로 어긋나는 증언을 중심으로, 인간 심리를 해부하거나 또는 결론을 통해 작가 아쿠다가와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마샤쿠 키미(駒沢喜美)씨는 "작자는 진범이 누구인지 문제 삼지 않는다[2].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증언을 통해 '인간 이기주의'에 따른 '의식적인 거짓말'을 그렸고, 그 때문에 가장 진실을 표방하고 있을 터인 고백이 결국에는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3]"이라고 하였다.

---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동부산대학교 한일비즈니스과 교수

1) 芥川竜之介의 소설. 야부노나카에서 일어난 살인에 대해 목격자나 당사자들이 증언하지만 그 내용이 각기 어긋남으로서 진상을 알지 못함. 大正11년(1922)발표
2) 駒沢喜美「芥川竜之介『藪の中』」『国文学解釈と鑑賞』1969년 4월"作者は真犯人を問題としていない"
3) 最も真実を標榜している筈の告白が、ついには真実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なることに命題がある。

또 시마다 아키코(嶌田明子)[4]씨는 “다른(인물의) 이야기를 통합하여, (범인을) 어느 한 사람으로 고정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하고 “각자의 말하지 못한 생각을 보완하도록 살인(자살)이라는 행위가 있으며, ‘야부노 나카’는 자기의 심정을 타인에게 말하려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전달하려하지만 전달하지 못한 채 표출해버리고 마는 말과 행위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 양자론은 작품론을 통해 그 결론에서, 아쿠타가와의 창작의도를 살펴본다는 작가론으로 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장인물들의 모순된 증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모순 자체를 작자의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야부노나카』선행논문의 다른 주제로서는, 그 증언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도 있으며, 그 때문에 원본의 오류로 보는 논문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원본[5]을 바탕으로 분석해가는 이상, 원본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쿠타가와의 원본 그대로를 작가의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각 단락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마사고(真砂)상(像)에 대해 검토하고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3명의 주인공 다죠마루(多襄丸), 마사고(真砂), 다케히로(武弘)가 등장하여 고백하는 세 단락을 중심으로, 각 단락에 있어서의 마사고의 말과 행동에 주목, 그것을 통해 아쿠타가와가 ‘야부노나카’에서 그려내고자 한 마사고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 상, 먼저 위의 세 단락 중 「다죠마루(多襄丸)의 자백(白状)」을 통해 본 마사고의 역할에 주목하며, 연계적으로 논문 「야부노나카 소고찰(2)」를 기하여, 각각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서 참회하는 마사고」「무녀의 입을 빌려 나타난 남자(다케히로)의 영(霊)」을 통해 본 마사고의 역할과 그 인물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논문(1)(2)를 통하여 마사고의 역할작용에 따른 마사고상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얻고자 한다.

본고의 원문인용은 『芥川竜之介全集/第8巻』岩波書店(1996년)에 의한다.

---

4) 嶌田明子「『藪の中』論/語りえぬ思い・その跳躍」『国文学解釈と鑑賞』2009년 7월

5) 본고의 원문은『芥川竜之介 全集/第8巻』岩波書店, 1996년 6월에 의한다.

2. 작품의 이해

2.1 작품개요

본 작품은『곤자쿠모노사타리슈(今昔物語集)』권29 제23화「具妻行丹波国男 於大江山被縛語(妻を具して丹波国に行く男、大江山において縛らるること)」설화가 제재가 되고 있다. 다만『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권29화 제23화는 소설『야부노나카』에 비하여 매우 소박한 이야기이다.『곤자쿠모노사타리슈』에서는 부부가 여행 중 한 젊은 도적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고, 도중에 남편이 도적에게 활과 말을 빼앗긴 끝에, 숲속(藪の中) 나무에 묶인 채 눈앞에서 강간당하는 처를 지켜볼 뿐인 한심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다. 마지막에는 처의 꿋꿋함과 젊은 도적의 남자다움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한심한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살인사건으로 구성한 것이 아쿠다가와의『야부노나카』이다.『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는 등장인물도「남자(男)」「처(妻)」「지금의 남자(今ノ男)」라고 하였듯이 명칭도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막연한 인물조형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쿠다가와의 소설로 재탄생하면서 남자는 다케히로, 그 처는 마사고,「지금의 남자」로 표기된 도적은 다죠마루라는 고유명사를 부여받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도「라쇼몬(羅生門)」이『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 그 제재를 취하긴 하지만, 완전히 재구성되어 근대소설로 거듭난『야부노나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그려지고 있다. 더구나『곤자쿠모노가타리슈』「처를 데리고 단파쿠니로 가는 남자, 오에야마에서 포박당하는 이야기(具妻行丹波国男於大江山被縛語)」에서는 여인이 강간은 당하지만 살인은 없었으며,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간을 당한 처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도, 그 후 단파쿠니(丹波国)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처를 범한 사내도 결코 사나운 도적은 아니며, 말을 빼앗고 활과 칼을 가지고 사라지기는 했지만 도덕질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이 아쿠다가와에 의해 환골탈태하여 재구성되면서『야부노나카』의 등장인물은 근대적 고뇌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진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의견과 해석을 각각 기술하고 차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는 기교적 수법이 사용되며, 당연히 그저 삼류기사에 지나지 않는 극적인 전개를 통해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선, 게비이시(検非違使)[6]의 조사에 답하는 나무꾼(木樵)과 여행법사(旅法師), 호벤(放免)[7], 마사고의 모친인 노파 4인이 살인사건의 외관과 개요를 말하면서

6) 平安시대 초기,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설치한 벼슬(현재의 검찰·재판·경찰 업무를 겸한 직책)

점차 객관적 사실로 명백해져 간다.

이어서 사건 당사자인 주인공 다죠마루, 마사고, 무녀(巫女)의 입을 빌려 사령(死靈)이 된 다케히로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사건의 내면을 고백한다. 여기서 심문에 응하는 나무꾼, 여행법사, 호멘, 노파 4인의 증언은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기술함으로써, 마치 탐정소설과 같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중 체포된 도적 다죠마루와 기요미즈데라에서 참회하는 마사고, 그리고 무녀의 입을 빌려 나타난 남자(마사고의 남편) 다케히로의 죽은 영혼이 들려주는 증언은 핵심적 단락이다. 당사자 3인의 증언 중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는 것은, 도적이 숲속에서 남자를 나무에 묶고 다케히로 앞에서 마사고를 강간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케히로의 사인(死因)에 대해서는 '우연' '타살' '자살'이라는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결국 어느 것이 진실 된 진상인지,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부노나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 논문은 100편이상이나 발표되었으며 논의도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소설의 제목을 빌어 관계자들의 주장이 어긋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증언자나 목격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진상을 확실히 밝히지 못할 경우의 표현하는 말로써 '야부노나카'라고 하는 어원은, 바로 이 소설 타이틀에 따른 것이다.[8] 고지엔(広辞苑) 제5판(岩波書店)에는,

> 「야부노나카 아쿠다가와류노스케의 동명소설에서 관계자가 말하는 바가 서로 달라 진상을 알 수 없는 것[9]」

이라고 하여, 소설의 제목이 일반명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일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읽었을 법한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제가 무엇인지, 사건의 진상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적다는 생각이다.

독자들은 『야부노나카』를 읽을 때 당사자나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보이며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증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도 정보사회라고는 하지만,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에 의한 범죄가 횡행하는 오늘날에서

---

7) 예전에 경범자를 방면하여 検非違使가 정보원으로 쓰던 자
8)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검색일 2014년 9월 18일)
9) やぶのなか【藪の中】(芥川竜之介の同名の小説から)関係者の言うことが食違っていて、真相が分らないこと。

조차도 정보는 항상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쿠다가와의 『야부노나카』도 결국 정보의 혼미, 정보과다가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였듯이 정보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유효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야부노나카』는 정보량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태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2 난해성과 마사고의 역할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부부와 다죠마루 3인의 증언이다.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 우선 대전제로서, 세 사람의 증언 모두는 의심스러우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경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증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 사람의 증언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죠마루의 경우가 가장 납득이 간다. 살인을 자백한 뒤에 극형에 처해달라는 것이어서, 결국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따라서 그의 증언이 가장 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경우, 부부의 증언과는 완전히 모순된다는 데 문제점은 있다.

처인 마사고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 세 사람 중, 다케히로처럼 죽지도 않았고 다죠마루처럼 체포되지도 않았다. 강간은 당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다. 한편으로 마사고는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남편을 배신하고 혹은 살해했다고 해도, 거짓말로 죄를 면하고자 했다면 간단한 것이다. 하지만 마사고는 자신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될 증언을 하고 있다.

남편 다케히로도 그러하다. 죽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판단하고 싶지만, 어차피 거짓말을 한다면 죽음을 당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처에게 죄를 뒤집어씌워도 될 것이다. 하지만 마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려는 듯 발언하고 있다. 즉 세 사람의 증언 중 최대 모순점은 3인이 모두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 사람의 가치관이다. 즉 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살인에 대한 사실이나 죄보다도, 수치심과 원한이라는 감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죠마루의 증언 중, 남자와의 격투장면에 과장이 보여 지는 점은 그러하다. 예를 들면 다죠마루를 살해하는 장면에 대해 '격렬한 격투 끝에 살해하였다(激しい格闘の末に殺した)' 고 허세를 부리며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고도 수치심 혹은 모멸이라는 것에 너무 구애를 받고 있는 듯하다. 다케히로는 처가 부정(不貞)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고 마침내 마사고를 원망한다. 이 모두는 즉 수치심이나 원한에 대한 감정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쿠다가와의 작가적 의식이 투영된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죄의식과 수치심에 대해 민감한 작가적 경향이, 등장인물 세 사람 모두를 각각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곧 모순된 증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쿠다가와는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의 죄와 수치심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야부노나카』는 아쿠다가와의 실제적 체험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기 전, 그는 히데 시게코(秀しげ子)[10]라는 유부녀와 만나고 있었다. 더구나 그 부인이 연하의 동료인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11]와도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12]

1919년 6월 10일 '열흘회(十日会)'라는 신진 문인들의 모임에서 알게 된 시게코는 아쿠다가와가 만난 여러 여성들 중의 한 명이다. 그녀는 아쿠다가와의 일기 『가키구츠모쿠로쿠(我鬼窟目録)』에는 그가 수인(愁人)으로 부르며 연모하던 여성이다. 하지만 시게코는 아쿠다가와에게는 숙명의 여인이라 할 만하다.

아쿠다가과가 시게코를 소재로 한 작품은 『아루아호노 잇쇼(或阿保の一生)』의 「광인의 딸(狂人の娘)」, 『하구루마(歯車)』의 「복수의 신(復讐の神)」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자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을 그린 『아키(秋)』라는 소설은 시게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착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특히 『야부노나카』에서 여주인공 마사고는 시게코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즉 삼각관계에 빠진 인간의 심리적 현실이 작품 속에 확실히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쿠다가와는 『어느 바보의 일생』중 「광인의 딸」에서는 시게코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덧붙이고, 시게코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과 2사람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쿠다가와는 시게코의 이상한 성적기호(性的嗜好)와 후의 스토커 행위로 이어지는 편집성(偏執性)에 대해 간파하고 「광인의 딸」로 표현함으로써 심한 증오의 대상으로 그려내기에 이른다. 사실, 시게코는 大正 10년(1921년 1월) 차남을 생산하였는데, 그 아이가 아쿠다가

10) 秀しげこ(1890~미상) 호는 도모네(鞆音·ともね). 나가노켄(長野県) 태생. 부친은 고리대금업자 오다겐바치(小滝顯八). 모친은 게이샤 출신의 다스케(たすけ)라고 함.

11) (1892年-1936年)소설가, 1917년 게이오(慶應)를 졸업. 이후 1920年까지 『三田文学』 편집주임을 거쳐 문필생활을 시작. 아쿠다가와를 스승으로 존경하며 小島政二郎, 滝井孝作, 佐佐木茂索 등과 함께 「龍門の四天王」으로 불리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川端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12) 감영희(2014.10)「아쿠다가와의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p.15 이하 참조

13) 감영희(2014.10)「아쿠다가와의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p.16 이하 참조

와를 닮았다고 하며, 아쿠다가와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가하였다.

또한 『하구루마』에서는 「복수의 신」으로 등장, 그녀는 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감출 수 없을 만큼의 대상으로 반추되어 있다. 즉 『하구루마』의 「복수의 신」에서 언급하는 「광인의 딸」은 시게코이며, 직설적 상황 묘사를 통해, 단 한번 그녀와의 정사로 아쿠다가와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시게코에 대해,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비록 아쿠다가와의 작품 속 상황이지만, 현실의 아쿠다가와의 시게코에 대한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야부노나카』집필 당시, 마사고를 통해 유추되는 여성은, 당시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서 아쿠다가와를 괴롭힌 여성 시게코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아쿠다가와의 일기 『가키구츠모쿠로쿠』에 따르면 아쿠다가와는 시게코와 2번의 밀회와 한 번의 정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친구 오아나 류이치(小穴 隆一)[14]의 저술 『두개의 그림-아쿠다가와 류노스케(二つの絵-芥川竜之介)[15]』에는 시게코와의 단 한 번 정교의 사실과, 그녀의 동물적이고도 과격한 욕구 앞에 질려버린 아쿠다가와의 심정이 토로되고 있다. 그리고 아쿠다가와의 유서에,

> 「나는 과거 생활의 총결산을 위해 자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이었던 것이 29세 때의 히데부인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僕は過去の生活の総決算の為に自殺するのである。しかしその中でも大事件だつたのは僕が二十九歳(数え年で28才)の時に秀夫人と罪を犯したことである。[16])」

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시게코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그로 하여 자살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오아나 류이치에게 생전에 전달했다는 유서(전술한 유서가 아니며, 현존하지 않음)를 통해, 7년 전 단 한 번의 정교(情交)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쿠다가와의 자살요인 중 하나로서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야부노나카』집필 전해인 1921년(大正10)의 일로, 이미 시게코와의 인연이 끝났던 아쿠다가와였지만, 시게코의

---

14) (1894년-1966년)화가, 수필가, 俳人.1919年 瀧井孝作을 따라東京田端의 아쿠다가와를 방문하고, 이후 아쿠다가와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1921年 『夜来の花』이후, 아쿠다가와의 저서 장정을 담당. 1922年 아쿠다가와를 모델로 『白衣』를 제작, 전시회에 출품 화제가 되었다. 아쿠다가와는 차남이 탄생하자 隆一의 이름을 따서 多加志라고 명명하였다. 1927년 아쿠다가와가 아이들에게 「小穴隆一を父と思へ。従つて小穴の教訓に従ふべし」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이후 유족과 친밀하게 교제하였다. 1956年 저서 『二つの絵』에서 아쿠다가와가 사생아였다는 것을 발표 파문을 일으켰다. 저서에 『白いたんぽぽ』등이 있다.

15) 中央公論社(1956)

16) 감영희(2014.10)「아쿠다가와의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p.20

스토커적 성향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던 시기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술하였듯이 아쿠다가와는 제자 격인 작가 난부슈타로와 불륜상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죽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게코와 아쿠다가와의 제자 격인 작가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가 마치아이(待合/현재의 러브호텔)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연히 마주하게 된 아쿠다가와가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과, 한사람의 불륜상대를 친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죽고 싶다는 뜻에서,

> 「사건이 드러난 후 일의 마무리보다도 미연에 자결해 버리고 싶다(事露顕はれて後、事を決するよりも、未然に自決してしまひたい)」

라고 적었던 것에서 그것을 증언한다.

아쿠다가와는 시게코의 스토커와 같은 집착 앞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마침 불륜으로 피소된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17]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가와니시 마사아키(川西政明)씨는 아쿠다가와가

> 「하큐슈가 간통죄로 체포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北原白秋が姦通罪で逮捕されたことも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ていた)」[18]

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불륜은 형사사건으로서 소송에 걸리면 체포될 가능성도 있었다. 즉 불륜상대로부터의 협박과, 형사적 체포 가능성을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보는 것은, 기타하라 하큐슈의 예를 두려워하며 몇 번이나 언급한 것이 그 유력한 소재라 하겠다. 아쿠다가와 자신이 그 같은 경우가 된다면 미쳐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병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아쿠다가와는,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발작 즉 발광(發狂)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그의 신경쇠약에 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시게코는 결국 아쿠다가와에게는 숙명의 여인이라 할 만하다. 일본학계에서는 아쿠다가와의 자살을 두고 여러 정황을 거론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 어느 정황보다도 그의 자살에는 시게코와의 관계가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야부노나카』의 주제를 여성에 대한 절망감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절망감과 인간을 그리기 위해 결국 주인공 다죠마루, 마사고, 다케히로 세 사람 모두는,

---

17) きたはらはくしゅう:1885年(明治18年)-1942年(昭和17年)시인, 동요작가, 가인.
18) 川西政明(2003)『文士と姦通』(集英社新書)

작가가 의도한 인물이 되어야만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기해 마사고의 숙명적 여성상에 대해 기술한다.

즉 각각의 인물은 수치심을 아는 인물로 포장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모순을 낳게 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이 점이 본 작품을 보다 난해하게 만든 포인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3. 숙명의 여성, 마사고

상술하였듯이 아쿠다가와에게 히데시게코는 숙명의 여성이라 할만하다. 아쿠다가와는 시게코를 모델로 『야부노나카』에서 마사고를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마사고는 숙명의 여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마사고의 숙명적 여성상에 다가서기 전, 먼저 '숙명의 여성'이란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일까.

불어인 팜파탈(Femme fatale)은 남자에게 있어서 '운명의 여성' 즉 운명적인 연애 상대, 혹은 홍실로 엮어진 상대라는 뜻을 의미한다. 혹은 남성을 파멸시키는 마성을 지닌 여자 즉 악녀를 일컫는다. 19세기말 유럽에서 당시 크게 유행했던 요부형 여성을 일컫는 말로써, 그 모습은 세기말 상징주의, 탐미주의 문학이나 미술에서 엿볼 수 있다.

19세기의 예술가가 발명한 팜파탈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 예를 들면, '길게 드리운 머리' '밀랍 같은 고운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 '풀린 듯 유혹하는 눈동자' 라고 하듯이 팜파탈 풍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패션이나 화장법 등은 당시 크게 유행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현상은 볼 수 있지만, 거리를 지나는 여성 모두가 이와 같은 무드로 걷는다면 어딘지 이상한 느낌일 것이다.

소설에서는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érimée)[19]의 『카르멘(Carmen)』[20]에 등장하는 여

---

19) (1803년 파리-1870년 칸느)프랑스 작가, 역사가, 고고학자, 관리. 소설 『카르멘』으로 알려짐.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 후에 관리가 되어 프랑스역사 기념물 감독관으로서 많은 역사적 건조물 보호에 힘씀. 나폴레옹 3세의 측근, 원로원의원으로 출세를 누렸다. 청년기에 연장자인 스탕달과도 친교를 가졌고, 공무 중 희곡이나 역사서 등을 기술하였다. 메리메는 신비주의와 역사와 비일상성을 사랑했다. 메리메 이야기는 종종 신비에 찬 외국을 무대로, 스페인이나 러시아가 빈번하게 발상적 근원이 되었다. 그러한 그의 소설 중 하나가 오페라 『카르멘』이다.

20) 『카르멘』(Carmen): 프랑스 작가 프로스벨 메리메가 1845년에 「양세계평론(両世界評論)」에 발표한 전4장으로 된 중편소설로,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

주인공 카르멘이나, 일본문학에서는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지진노 아이(痴人の愛)[21]』에 그려진 나오미(ナオミ)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22]

『신약성서(新約聖書)』「복음서(福音書)」등에 전하는 살로메는 예수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자 요하네의 머리를 요구한 대표적인 악녀로, 고대 기독교에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세기말 예술에서는 자주 거론되어 등장하는 여성이다.

악녀의 이미지는 은왕조(殷王朝) 말기(기원전 11세기경)황제 주왕(紂王)의 황후로서 제신(帝辛)에게 총애를 받은 악녀의 대명사적 존재로 불리는 단기(妲己), 주나라 유왕의 황후로 유왕이 잘 웃지 않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 평온한 시기에도 가끔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소집하기도 했다는 포사(褒姒), 영국 아서왕의 이야기에 등장하여 많은 작품에서 악녀로 알려진 모건 르 페이(Morgan le Fay), 유다야의 전설에 남아를 해치는 여성의 악령으로 알려진 리리스(Lilith), 고대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로서 절세의 미녀이며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 매력적 화술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 VII), 그리스신화의 등장인물인 반인반수(半人半蛇)의 괴물여성으로 페로스와 류비에의 딸 라미아(Lamia), 중국 4대 민화전설『백사전(白蛇伝)』에 등장하는 히로인 백낭자(白娘子)등으로 대표되며, 현대에 와서는 여자 스파이 마타하리도 악녀의 유명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팜파탈은 '치명적 여인'을 뜻하는 용어로 프랑스어 그대로 인용된다. 이 용어는 또한 1940년대 필름 누아르[23] 장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대부분 필름 누아르의 남자 주인공은 범죄 혹은 음모로 인해 타락하거나 파멸하는데, 남자 주인공의 파멸은 대부분 여성의 유혹과 관련을 맺고, 여기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 특히 '남자를 위험과 재앙으로 이끄는 여성'을 뜻하는 '팜파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혹자는 이 용어 대신에 팜므 누아르(femme noir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일 양국을 떠나, 좀 더 폭넓게 들여다보면, 이 용어의 기원은 1920년대 무성영화 혹은 1930년대 고딕영화[24]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딕 영화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요염

---

21) ちじんのあい:소설. 1924년 3월가부터『大阪朝日新聞』에 연재. 6월가부터 10월まㅋ까지 일단 중단했지만, 후반은 잡지『女性』에 1925년 7월まㅋ까지 게재됨. 가페 여급이던 ナオミ를 키워 언젠가는 자신의 처로 삼고자 했던 남자 河合譲治가, 점차 소녀에게 홀리어 파멸하기까지를 그렸다. 탐미주의의 대표작으로, 「나오미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킴. 나오미의 모델dms ekdtl 谷崎의 처였던 지요(千代)의 여동생(고바야시 세코・小林せい子)이다. 谷崎는 연재재개 설명에서 이 소설을「私小説」이라 함.

22) http://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4.12.05)

23) 필름 누아르(film noir)는 범죄와 폭력을 다루면서, 도덕적 모호함이나 성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군의 영화를 가리킴. 프랑스어로 '검은 영화'. 1946년 프랑스 비평가 니노 프랑크(Nino Frank)가 처음 사용하였다.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필름 누아르 시기는 일반적으로 1940년대 초에서 1950년대 말에 걸쳐있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사조에 뿌리를 둔 우울한 흑백풍 스타일과 관련이 깊은데, 많은 스토리들이 대공황 시기의 범죄소설인 하드보일드파로부터 뻗어 나왔다.

하면서도 신비스런 자태로 긴 담뱃대를 사용해 연기를 뿜어대는 요부(vamp)는 남성을 유혹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팜파탈 이미지를 보여 준다. 이 시기 치명적인 힘을 지닌 요부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 준 배우로는 테다 바라(Theda Bara),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가 있다. 1940년대 누아르 영화에서는 수잔 헤이워드(Susan Hayward)나 라나 터너(Lana Turner) 등이 팜파탈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상은 1960년대 변형기를 거쳐 1980년대 로렌스 캐스던(Lawrence Kasdan)이 감독한 '보디 히트'(Body Heat, 1981)의 캐슬린 터너(Kathleen Turner), 1990년대 폴 버호벤(Paul Verhoeven)이 감독한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1992)의 샤론 스톤(Sharon Stone)과 같은 새로운 팜파탈을 만들어냈다. 한국영화에서의 대표적 팜파탈은 이석기 감독의 '아주 특별한 변신'(1994)에서의 이혜영, 곽지균 감독의 '장미의 나날'(1994)과 정지영 감독의 '블랙잭'(1997)에서의 강수연을 들 수 있다.[25]

'숙명의 여성'이라는 말은 상술하였듯이 항간에서 말하듯 '운명의 붉은 실로 역어진' 커플이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지만, 팜파탈에는 숙명적・운명적 의미 외에도 '치명적・파멸적 사인(死因)'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프랑스의 대표적 백과사전 라르스(Larousse)에는 「연심(恋心)을 품은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운명이 보내준 듯 매력을 지닌 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팜 파탈은 그 만남이 운명에 따라 정해짐과 동시에 남자에게는 파멸을 부른다는 의식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즉 남자 쪽에서 보면 파멸을 초래하고 혹은 목숨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래도 남자가 사랑에 빠져버릴 정도의 매력을 지닌 여성이라는 것이다.

팜파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였으므로 프랑스 남성의 감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감각을 상상시키는 문장을 일본서 중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 "팜파탈(femme fatale). 이 얼마나 요염하고도 아름다운 울림을 가진 말인가. 가타가나로 쓰지만 반복되는 「화」의 두음이 귀에 명쾌하게 울린다. 그야말로 프랑스어의 f는 아랫입술을 윗 치아로 가볍게 깨무는 소리여서, femme fatale 라고 두 번 f음이 반복되면, 마치 여성이 성적 엑스터시에

24) 고딕 소설의 관습을 따르는 영화의 총칭. 일반적으로 유령이나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오래된 집, 성 등을 배경으로 마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여 초자연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토드 브라우닝(Tod Browning) 감독의 <드라큘라>(Dracula, 1931)가 초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고딕 영화라면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레베카>(Rebecca, 1940)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배제된 고딕 영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검색일: 2014.12.20)

25) [네이버 지식백과]팜파탈(femme fatale)(영화사전 2004.9.30, propaganda) 검색일: 2014.12.13

이르기 직전 그 쾌락을 억누르듯이 입술을 깨물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중략) 즉 프랑스어로 발음되는 팜파탈은 그 입술의 움직임에서 보아 상당히 에로틱한 용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남성들은 이 팜파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혹적인 여성의 입술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듯한 기분조차 드는 것이다. 그것은 팜파탈 그 자체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 즉 한번 들으면 결국 그 마력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26]

오늘날, 영화나 광고에서 자주 보게 되는 성(性)을 상품화한 섹시한 여성상은 팜파탈이라는 여성상으로부터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다. '남자를 파멸시키는 요녀・악녀'라는 팜파탈도 역사적・시대적 변천, 가치관의 전환 등을 거치면서 선(善)・악(悪)、미(美)・추(醜)라는 다양성을 가진 여성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팜파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팜파탈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페미니스트의 비판 대상이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팜파탈이 지닌 성적인 힘은 남성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위협과 희생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보디 히트' 나 '원초적 본능'과 같은 영화에서 성적 욕망을 지닌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포를 발견하기도 한다. 즉 팜파탈은 역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뒤집어버릴 정도의 힘을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쿠다가와는『야부노나카』의 주제를 여성에 대한 절망감에서 찾고, 그것을 마사고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마사고의 팜파탈적 성향은 가부장제하의 여성 마사고가 느끼는 절망감이, 다죠마루의 자백을 통해 어떻게 의도되고 있는지 이하, 고찰한다.

---

26) 鹿島茂(2003)『悪女入門』ファム・ファタル恋愛論 (講談社現代新書) 新書, p.117
"ファム・ファタル(femme fatale)。なんと妖しげで美しい響きをもった言葉でしょうか。カタカナで書いてさえ繰り返される「ファ」の頭韻が耳に快く響きます。ましてや、フランス語のfは下唇を上の歯で軽くかむ音ですので、femme fataleと、二度fの音が繰り返されると、まるで女性が性的エクスタシーに達する直前、その快楽をこらえるかのように唇をかんでいるイメージが湧いてきます。中略。つまり、フランス語で発音されるファム・ファタルは、その唇の動きからして、相当にエロティックな言葉なのです。ですから、フランスの男性は、このファム・ファタルの言葉を耳にすると、さながら空中に蠱惑的な女性の唇がポッカリと浮かんで、自分に誘いをかけているような気さえするようです。それは、ファム・ファタルそのもののように男を誘惑する言葉、一度耳にしたら最後、その魔力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言葉なのです(femme fatale).

4. 「다죠마루(多襄丸)의 자백(白状)」과 마사고의 역할

우선 본 단락에서 다죠마루가 마사고를 강간한 후 떠나는 장면을 보자.
마사고는 다죠마루에 대해 '미치광이처럼 매달려'서

>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어느 한 쪽이 죽어 줘요.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괴로워요.(あなたが死ぬか夫が死ぬか、どちらか一人死んでくれ、二人の男に恥を見せるのは、死ぬよりもつらい)"

라고 말한다. 마사고는 다죠마루의 죽음을, 이어서 남편 다케히로의 죽음을, 마지막에는 둘 중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 단락에 기술되고 있듯이, 이미 나무에 묶인 다케히로이기 때문에 마사고가 살해하고자 한다면, 마사고 혼자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마사고가 떠나려는 다죠마루의 말을 붙잡지 않아도, 자신이 다케히로를 죽이고자만 한다면 '어느 한 쪽의 죽음'을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마사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남자를 따르고 싶다.(その内どちらにしろ、生き残つた男につれ添ひたい)"고 덧붙인다.

마사고는 원래 다케히로와 부부로 함께 살았다. 그럼에도 다케히로에 대해 새삼스럽게 부부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사고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남자는 바로 다죠마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사고의 소망은 단순한 어느 한쪽의 죽음이 아닌, 다죠마루를 만류함으로써 다케히로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음에 다죠마루는 일방적으로 마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후, 마사고의 다죠마루에 대한 관심도 전해진다. 다죠마루가 마사고를 강간 한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함으로써, 다죠마루의 마사고에 대한 관심은 그 현장에만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마사고에게 어떤 생각을 품게 했을까. 어머니인 노파의 말을 빌리자면 마사고는 "남자에게도 맞먹을 만큼 당찬 여자(男にも劣らぬ位、勝気の女)"이며, 다죠마루도 "그렇게 기가 센 여자는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あの位気性の烈しい女は、一人も見た事がありません)"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다죠마루가 마사고를 "기가 센 여자"로 표현하는 근거가 된 행동을 보면, "남자는 삼나무 밑둥이에 묶여 있다. 여자는 그것을 한눈에 보자, 어느새 품에서 꺼내 들었는지 번쩍 칼을 빼 내었습니다(男は杉の根に縛られてゐる、女はそれを一目見るなり、何時の間に懐から出してゐたか、きらりと小刀を引き抜きました)"라고 한 점이다.

이처럼 마사고의 기센 성격은 위기에 처해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 강간을 당한 후 아무리 기센 성격의 소유자인 마사고라 하더라도, 다죠마루가 현장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자신이 멸시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죠마루를 만류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마사고가 다죠마루에게 '따르고 싶다'고 말한 의미는, 다죠마루가 떠나려고 한 일회성의 관심을, 부부라는 지속적인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관심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사고의 말이 있은 뒤 다죠마루는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この女を妻にしたいと思ひました)" 라는 심정을 밝힌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뿐이다(かう云ふ一事だけ)"라고 하여 마치 한결같은 연모임을 밝히는 듯 하며, 다죠마루 스스로 "천한 색욕은 아닙니다(卑しい色慾ではありません)"라고 말한다. 그 증명으로서 "만약 그때 색욕 외에 아무것도 원했던 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자를 쓰러뜨리고 도망치고 말았을 테죠" 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마사고에 대한 연모를 호소함과 동시에, 최초 강간 후 바로 떠나려고 한 다죠마루가 오히려 '천한 욕정'만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기도 한 것이다.

다죠마루는 다케히로에 대해 "죽이지 않는 한,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殺さない限り、此処は去るまいと覚悟)"한 다음, 그러나 비겁하게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다케히로의 밧줄을 풀고 격투를 벌이고, 그 경위를 "나와 20번이나 칼을 맞부딪치며 싸운 자는 천하에 그 남자뿐"이라며 혀를 내두르며 쾌활하게 웃었다.

이 행동은 당초 다죠마루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 다케히로를 수풀 속으로 유인하여 "갑자기 상대방을 덮쳐 눌러(いきなり相手を組み伏せ)" 혀를 찌른 모습이나, 마사고에게 "남자가 급병을 일으킨 것 같다(男が急病を起したらしい)"고 속여 강간한 심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그야말로 다죠마루가 "천한 욕정이 아닙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 뿐이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다죠마루는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상대를 속여서 불시에 급습하는 수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마사고를 '처로 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자, 그때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비겁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다. 마사고가 다죠마루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한 목적은, 이 달라진 행동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죠마루는 처음 마사고를 강간하고자 했던 욕정뿐이었을 때는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빼앗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마사고의 발언으로 연모의 마음으로 바뀌자 "번개에 맞아 죽는다 해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두 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첫째, 앞의 글은 타인의 죽음인 것에 비해,

뒤의 글은 다죠마루 자신의 죽음으로 바뀐 점, 둘째로 '죽여도(殺しても)'라는 능동적 문장이, 나중의 '살해당해도(殺されても)'라는 수동적 문장으로 표현된 점이다.

이 차이는 우선 죽음의 대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서, 다죠마루에게는 마사고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는 변화에서 생각해 볼 때, 다죠마루의 마사고에 대한 발언도 고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죠마루는 마사고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얼굴을 '여자 보살(女菩薩)' 같다고 한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살'과 신앙의 대상으로서 비유한 점에서, 다죠마루의 마사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즉 보살과 번개(カミナリ·神鳴)라는 것은 같은 성스러움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カミナリ(벼락)를 천둥(雷)이 아닌 '가미나리(神鳴)'라고 신(神)이라는 단어를 넣어 표현한 점에서, '보살'인 마사고를 신성을 가진 여성으로 비유한 것이다. 즉 다죠마루 자신도 마사고의 의사대로 조종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라는 상대에 대한 능동적 사고에서 '살해당해도'라는 자신을 향한 수동적 생각으로 변화해 간 것이다.

이처럼 다죠마루는 마사고의 말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케히로와 맞겨루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마사고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상태의 다케히로를, 일부러 다죠마루를 붙잡고 '어느 한쪽이 죽어 줘' 라고 말한 점에서, 마사고가 어느 한 쪽을 죽이는 것이 아닌, 다죠마루와 다케히로의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한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처음 부부와 다죠마루가 만났을 때, 다죠마루는 '길동무가 된 부부'라고 했지만, 돈벌이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남편이라고 한다. 숲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욕심에 목말라 있는' 것은 남편인 다케히로이며, 마사고는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기다리겠다(馬も下りずに、待ってゐる)'고 하였다. 그것을 다죠마루는 "덤불이 우거진 것을 보아서는 그런 것도 무리는 아니다(藪の茂つてゐるのを見ては、さう云ふのも無理はありますまい)"라고 하였지만, 마사고는 다케히로가 갑자기 아프다는 다죠마루의 이야기를 듣자, 덤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처럼 마사고는 필요하다면 남편을 위해 덤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기다리겠다고 한 점에서, 마사고에게 돈벌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남편 다케히로가 다죠마루에게 속임을 당함으로써, 마사고 자신의 운명도 다죠마루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더구나 다케히로는 마사고가 다죠마루에 의해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자신의 욕심 탓에 아내가 강간당하게 되었고, 묶여 있다고 하지만 눈앞에서 돕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 당차고 기센 마사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마사고는 다죠마루와 다케히로와의 격투 도중 사라진다. 그것을 다죠마루는,

> “칼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숲을 빠져나가 도망쳤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에는 내 목숨이니까 (중략) 한번은 가죽나무 끝에 내걸릴 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제발 극형에 처해 주세요(太刀打を始めるが早いか、人の助けでも呼ぶ為に、藪をくぐつて逃げたのかも知れない。わたしはさう考へると、今度はわたしの命ですから(中略)一度は樗の梢に、懸ける首と思つてゐますから、どうか極刑に遇はせて下さい)”

라고 한다.

즉 이것은 어느 한쪽이 죽어 주기를 바란 마사고의 말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원망스러운 다케히로와 다죠마루를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단순한 죽음이 아닌, 살아남았다고 해도 극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도록 만든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고는 격투 중에 사라진 것이다. 만일 살아남은 남자를 따르겠다던 마사고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결말의 행방을 지켜봐야했다. 그야말로 마사고의 발언은 다죠마루와 다케히로를 싸우도록 만드는 방편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사라짐으로써 살아남은 자에게 모든 죄를 지우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마사고는 자신을 강간한 다죠마루와, 그 원인을 제공한 다케히로에 대해 순식간에 보복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다죠마루를 조종하여 다케히로와 싸움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마사고의 팜파탈 적 성향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이 단락은 다죠마루가 주체적 화자인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다케히로의 죽음에 마사고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사고는 그야말로 다케히로와 다죠마루에게는 숙명의 여성, 팜파탈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두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마사고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문학 혹은 회화 속에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팜파탈적 숙명의 여성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혹적인 미모로 남자를 숙명적 고리 안에 가두어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여성이라는 테마를 통해, 19세기 낭만파에서 세기말 문학 중에 나타나는 숙명의 여인 팜파탈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아쿠다가와는 생존 당시 프랑스의 문호 고체(Théophile Gautier)[27]의 희곡『캔들러 왕』(Le

---

27) Pierre Jules Théophile Gautier(1811년-1872년)프랑스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비평, 회화평론, 기행문도 남기고 있다.

Roi Candaules) 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작품 속『육체와 죽음의 악마』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숙명적 여인의 전형 니시아 마리오 프라츠와 마사고는 유사한 운명에 처해있다. 왕에게 충실한 호위대장 지젠스를 시해자의 운명을 걷게 만드는 니시아는, 다죠마루를 형장으로 이끄는 마사고의 역할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지제스=다죠마루, 니시아= 마사고라는 형상에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미모, 즉 여신과도 같은 니시아와 여보살 같은 마사고는, 남자에게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을 불사하는 강렬한 수치심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어느 한 쪽이 죽어 줘요.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괴로워요" 등은 그것을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다만 다죠마루의 자백을 통해본 마사고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숙명의 여인 팜파탈적 기질은『야부노나카』의 작품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주제라는 생각마저 든다.

5. 결론

이상에서 다죠마루의 자백 단락은 다죠마루가 화자인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다케히로의 죽음에 마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속에는 아쿠다가와의 히데시게코와의 관련 속에서 작가의 수치심과 죄에 대한 큰 인식이 마사고상과 겹치면서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팜파탈적 성향의 마사고상으로 드러나 있다.

1) 아쿠다가와는 마사고를 기세고 당찬 여성으로 그려내었다. 그 영향으로 다케히로는 죽음을 맞게 되고, 다죠마루는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다. 즉 아쿠다가와의 야부노나카는 마사고를 통하여 남자의 부당함, 즉 남편의 무능함과 여자를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남자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간 여성을 주제로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시에 아쿠다가와의 마사고는 그야말로 숙명의 여성, 그 자체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죠마루와 다케히로 두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즉 마사고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학 혹은 회화 속에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팜파탈적 숙명의 여성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3) 본고에서는 다만 다죠마루의 자백을 통해본 마사고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숙명적 여인성은『야부노나카』의 작품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주제라고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4) 결론적으로 마사고의 역할은 팜파탈의 숙명적 여성이면서, 역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전복적인 힘을 잠재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參考文獻】

芥川龍之介(1996)『芥川竜之介 全集/第8巻』岩波書店
鹿島茂(2003)『悪女入門』ファム・ファタル恋愛論 (講談社現代新書) 新書
芥川龍之介(2009)『地獄変・偸盗』新潮社
芹澤光興(2000)『芥川龍之介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長谷川泉(1981)『近代名作鑑賞』至文堂
笠井秋生(1966)『人と作品芥川龍之介』清水書院
三好行雄編(1979)『芥川龍之介必携』学灯社
野町二他(1977)『イギリス文学案内』朝日出版社
齋藤勇著(1974)『イギリス文学史-改訂増補第5版』研究社出版
伊藤整他(1966)『新潮世界文学小辞典』新潮社
_____「芥川龍之介『藪の中』の真相」(テンメイのＲＵＮ＆ＢＩＫＥ)
「芥川龍之介『藪の中』の真相」(テンメイのＲＵＮ＆ＢＩＫＥ,2013年6月1日アクセス)
「藪の中」(wikipedia)
『文芸読本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1992)
芥川龍之介(1971)『芥川龍之介全集』筑摩書房
감영희(2014.10)「아쿠다가와의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네이버 지식백과]팜파탈(femme fatale)(영화사전 2004.9.30, propaganda) 검색일: 2014.12.13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4.12.5
http://kin.naver.com/qna/detail.nhn 검색일: 2014.12.20

논문투고일 : 2014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115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9일

<要旨>

『야부노나카(藪の中)』 소고찰(1)

다죠마루의 자백 단락은 다죠마루가 화자인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다케히로의 죽음에 마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속에는 수치심과 죄에 대한 아쿠다가와의 인식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쿠다가와의 마사고는 그야말로 숙명의 여성, 그 자체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죠마루와 다케히로 두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즉 마사고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학 혹은 회화 속에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팜파탈(femme fatale)적 숙명의 여성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사고의 역할은 팜파탈의 숙명적 여성이면서, 역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전복적인 힘을 잠재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Masago's Image seen through Dazyoumaru's Confession

Despite the fact that Dazyomaru's confession was narrated by Dazyomaru himself, Masago's influence played a major role in both the confession and Takegiro's death. Within the content, Akudagawa's recognition of the sense of shame and transgression is reflected greatly. Concurrently, in Akudagawa, Masago can be called "the woman of fatality" who subconsciously or consciously leads both Takehiro and Dazyomaru to their death. Moreover, Masago is repeatedly reproduced in literature and paintings from the old to the present time as femme fatale. In conclusion, Masago played the role of fatal femme fatale. More importantly, her role displayed the hidden potential of women power within the ideology of patriarch.